

코스피	2218.68	코스닥	674.95
(-6.99)		(+3.44)	
금리 (연율)	3.661	환율 (원/달러)	1271.00
(-0.121)		(-1.60)	

[정치]  
尹 대통령  
“폐단 바로잡고  
3대 개혁 강력 추진”  
08



## 반도체 숨통 트인다... 대기업 투자 최대 25%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제지원 강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비율 확대  
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  
올해 투자 증가분 추가 10% 혜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이 반도체 투자시 혜택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추가 10% 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안을 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기존 8%에서 15%로 약 2배 가까이 상향된다.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 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더해 최고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오른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10%에서 3~12%로 2%포인트 씩 일괄 상향되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이 3~12%에서 6~18%로 기

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 내년 세수 3.6조원 줄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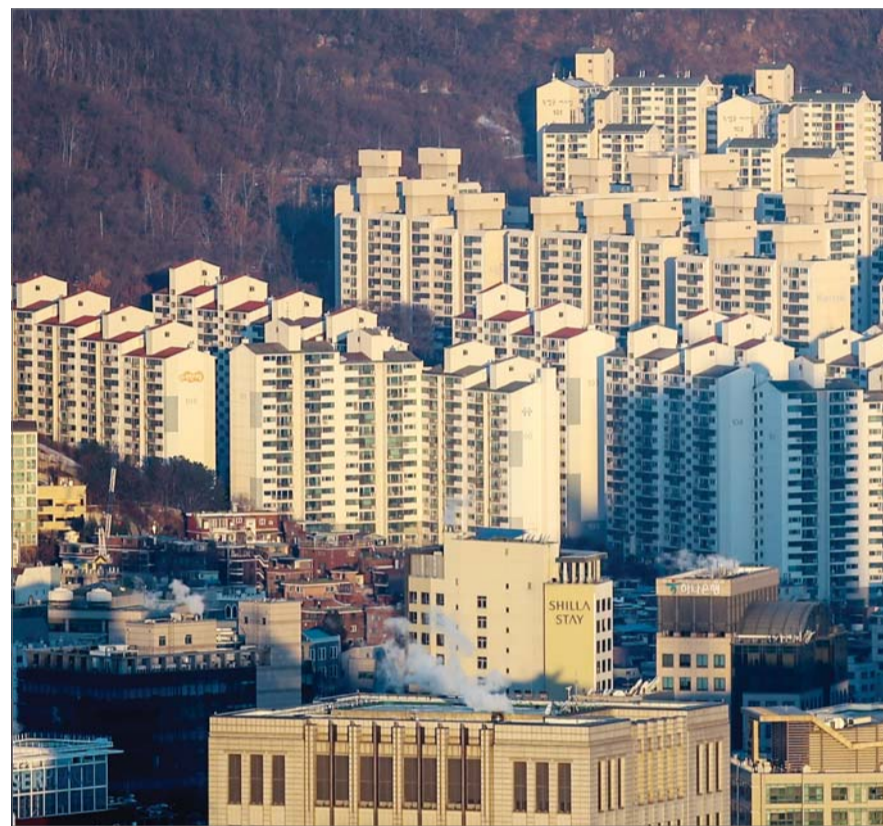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가 제시한 대기업 기준 20%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이번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이 나왔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 경쟁력은 확보했으나, 세수가 급감한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후 2025~2026년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3년으로 단축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현행 12억원인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과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인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도 폐지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관련기사 2면>

/뉴시스

## 경기부양 최우선 추진... 올해 반등 기대감

### 2023 차이나 기상도

#### 2 증시

과감한 리오프닝 선순환 효과 기대  
골드만 "소비·서비스 부문 큰 수혜"

올해 중국 증시에 대해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범중화권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5000조원에 달하지만 그간 발목을 잡았던 방역 정책이 완전히 방향을 틀었고, 당국이 경기 부양을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며 기업들에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낸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 중국 증시, 여전히 코로나19에 발목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에서 감소한 시가총액은 총 3조9000억달러(한화 약

4940조원)다. 중국 증시가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 소식에 일제히 반등했지만 한해 전 체로 보면 대형주가 주로 상향된 상하이종합지수가 15.12% 하락했고, 중소형주 위주의 선전성분지수는 25.9%나 급락했다.

홍콩 항셱지수 역시 작년 하락폭이 15.45%에 달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18.59% 하락으로 장을 마치며 1994년 개장한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간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면 올해는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확산이 걸림돌이 됐다.

이날 항셱지수는 신정 휴일을 끝내고 올해 첫 거래를 시작했지만 경기 침

체 소식이 1% 이상 하락세로 출발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위한 준비는 부족했고, 감염자 급증에 경제 활동은 오히려 위축됐다.

중국의 체감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달 49로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 미만에 머물렀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내수 시장의 수요는 부진했다. 노동력 부족에 공급 부문까지 모두 타격을 입었다.

노무라 징왕 애널리스트는 "제로 코로나 증식에 따른 초기 충격이 지난달 경제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났다"며 "갑작스러운 방역 정책 완화에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이동과 경제활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기자 smahn1@

### 5일 개막 'CES 2023'

## 메타버스·인간안보 등 주목

美 CTA, 올해 슬로건 'Be in it'  
웹3.0 등 다섯가지 키워드 선정

세계 최대 전자·IT박람회 'CES 2023'이 오는 5~8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사전 미디어행사는 3일부터 열린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인간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상상 속에 존재하던 기술들도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삼성전자, LG전자, SK그룹 등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진화된 IT 신기술과 가치를 제시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3일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올해 CES 2023의 슬로건을 'Be in it'(빠져들어라)로 정했다고 밝혔다. CES 2023에는 173개국에서 1000개 신규 업체 등 총 3100개 이상 업체들이 참가한다. 주요 업체로는 삼성, SK, LG를 비롯해 구글, 소니, 아마존 등이다.

CTA는 'CES2023'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웹3.0 ▲메타버스 ▲인간안보 ▲지속가능성 ▲디지털 헬스 ▲모빌리

티 등을 선정했다. 여기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신기술에 따른 제품들도 소개될 전망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모빌리티에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기업중 구글은 자동차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협력사와 함께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선보인다. 국내 기업은 현대모비스가 목적기반 차량량(PBV) 콘셉트 모델인 엠비전 TO와 HI를 소개한다.

친환경 기술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SK그룹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 솔루션 관련 기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중 SK그룹이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 2023 전시관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LG전자는 'CES 2023' 전시관 내에 별도로 ESG존을 마련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최빛나 기자 vitna@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종인 "尹, 신년사에 '야당 협조' 발인 전무... 올해 더 어렵다"  
▲ 문희상 "이재명, 종이짜 보내도尹신년회 참석했어야" /사진 뉴시스

▲ 대통령실 "한미, 美핵전력 공동 기획·실행방안 논의 중"  
▲ 당정 "실 성수품 30~50% 할인... 118만 가구 연료비 지원"



▲ 여야 첫 회동... 국정조사 연장·1월 임시국회 '평행선'  
▲ 이낙연 "南北 정상 이럴 일 아냐, 전쟁 얘기 너무 함부로... 걱정돼" /사진 뉴시스